



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·연금대학원
SKKU GRADUATE SCHOOL OF GLOBAL INSURANCE AND PENSION

Login/Sign up



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정방향

Graduate School of Global Insurance & Pension in SKK Univ.

YouMi, Lee

2018. 12. 22



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·연금대학원
SKKU GRADUATE SCHOOL OF GLOBAL INSURANCE AND PENSION

1. 현황

-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1988년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70%에서 1998년 60%, 2008년 50%, 그 이후 매년 0.5%포인트씩 줄여 2028년엔 40%까지 축소될 예정

2.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대폭 삭감이 가지는 의미?

- 은퇴전 생활수준의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 중 은퇴전 생활수준수준의 유지목적이 약화되었음을 의미
- 장래연금지출을 대폭 줄이므로써 적어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잠재적으로 크게 완화되었음을 의미

3. 핵심과제

- “노후 빈곤의 방지” 내지 “은퇴 전 생활수준의 유지”로 표현되는 급여의 적절성 확보하면서 동시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것

1. 대규모 사각지대

-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 중 공적 연금 적용인구는 69.26%, 나머지 30.74%에 해당하는 1,012만 명은 적용 제외
- 적용인구 중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납부 예외자와 장기체납자가 17.0%나 되고 있음

15~64세 인구: 37,693천명

18~59세 총인구 32,911천명 ¹⁾ (100.0%)					
경제활동인구 ²⁾ 23,071천명					
공적연금 적용자 ⁴⁾ 22,793천명					
국민연금 적용대상 ⁶⁾ 21,349천명					
비경제활동 인구 ³⁾ 9,040천명 29.90%	공적연금 비적용자 ⁵⁾ 278천명 0.84%	국민연금 적용대상 ⁶⁾ 21,349천명		특수지역 건금 ⁹⁾ 1,444천명 4.39%	
		납부예외자 4,511천명 13.71%	장기체납자 ⁷⁾ 1,093천명 3.32%	소득신고자 16,838천명	
				보험료 납부자 ⁸⁾ 15,745천명 47.84%	
소계 15,722천명(47.77%)				소계 17,189천명(25.23%)	

자료 : 유모선, 유현경, 2017

2. 낮은 급여 수준

- 노후 소득원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
 -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, 돌봄 및 요양서비스의 낮은 사회화
 - 자녀교육, 자녀 결혼 및 주택자금 제공, 조기퇴직관행에 따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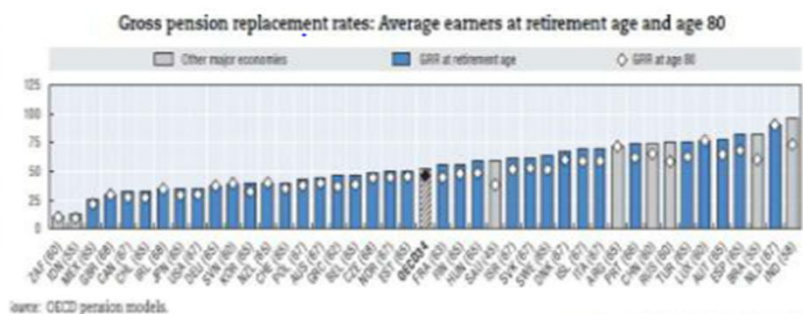
소득공백기 노후준비자금 활용 등
-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은 소득 대체율 40%로서 OECD 공적 연금의

평균 소득대체율 52.1%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

<표 1> 국민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

가입기간 (년)	소득계층			
	0.5A	1.0A	2.0A	OECD 평균소득자
10	15.0%	10.0%	7.5%	7.9%
20	30.0%	20.0%	15.0%	15.9%
30	45.0%	30.0%	22.5%	23.8%
40	60.0%	40.0%	30.0%	31.8%

<그림 >> 공적연금소득대체율 국제비교



StatLink <http://dx.doi.org/10.1787/888933300676>

3. 국민연금재정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

- 단계적 보험료 방식에 부분적립의 재정방식은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나감을 전제로 함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평가가 보험 요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나온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행해지고 있음
- 별다른 재정화 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향후 45년간 기금이 소진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(9%의 역설) 재정안정화에 대한 불안 강조.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기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음.

4. 정부 안

- 4가지 안(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치우쳐,
재정불균형 해소책은 부족, 후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)

1) 현행유지안(보험료율 9%, 소득대체율 40%유지) -2057년

2) 보험료율, 소득대체율 유지, 기초연금을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
-2057년 (후세대 부담 가중 문제, 기초연금:65세이상 노인 70% 지급,
전액 세금으로 부담)

3) 보험료율을 12%로 인상하는 안 -2063년

4) 보험료율 13%, 소득대체율 50%로 상향하는 안 -2052년

1. 사각지대 해소

- 크레딧(가입기간 산입) 제도란

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, 노후 소득보장 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활용

1) 출산 크레딧

- 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이상 얻었을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
- 자녀2인 12개월, 3인 30개월, 4인 48개월, 5인 50개월 추가

2) 군복무 크레딧

- 08년 1월 이후 입대 현역, 전환복무, 상근예비,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이상 복무한자 6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인정

3) 실업 크레딧

- 구직급여수급자(18이상~60세미만) 희망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
- 직전 3개월 평균 소득50%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% 지원(25% 본인부담)
- 최대 12개월 지원

1. 사각지대 해소

- 크레딧(가입기간 산입) 제도의 확대

출산,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 기간의 확대, 출산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

크레딧 부여, 자녀 수 제한 폐지, 군복무의 근무 전기간에 대해 크레딧 부여

- 실업 크레딧 확충(소득상한선 및 기간 확대)

- 보험료 지원사업(사회보험누리사업)의 한시적 확대

- 특수직종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

2. 급여수준의 적절성 제고

-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소득상한선이 적용되고 지역가입자의 하향소득신고 경향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사회 전반의 평균 소득을 대표하기에는 낮은 수준
 - OECD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52.1%와 비교할 때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%는 낮은 수준
- 우리나라의 노인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사회화 수준, 자녀교육 및 양육 관련 사회적 관행 및 지출, 조기퇴직과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 등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더욱 낮다고 할 수 있음

2. 급여수준의 적절성 제고

- 낮은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순응성을 높이는 데에도 곤란함.
-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2018년 부터 소득 대체율 45%에서 급여감축 계획을 중단할 필요 있음.

구분	2013	2015	2020	2030	2040	2050
노인 수	6,138	6,624	8,084	12,691	16,501	17,622
노령연금 수급자 수	1,782	2,056	2,764	5,194	8,972	12,310
수급율	29.0	31.0	34.2	40.9	54.4	68.4
평균 소득대체율	19.9	24.2	24.8	23.3	21.8	20.4

* 자료 : '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(2013). 평균소득대체율은 재정계산 결과(2013)에 따른 국민연금연구원 추계자료(2013.4).

3.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

- 국민연금 재정 기반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매우 견실하다고 할 수 있음.
- * 국민연금은 제도 초기에 급여지출에 비해 상당 정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출발했고, 제도 도입 10년 만에 두 자리 수에 가깝게 보험요율을 인상한 결과 2017년 12월말 현재 621.7조의 기금을 쌓아두게 됨
- 국민연금이 현재와 같이 수익창출을 통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해 주기 위해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려면 보험요율을 현재보다 인상할 필요 있음
- * 부분 적립방식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미래 오인세대의 연금 수급권 보장력을 보다 확고히 하는 기능

3.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

- 국민연금이 위의 전망대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.

동시에 보험료율 인상이 단행되기 위해서는 국내경제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, 한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거대기금의 운영이 가능함이 거증될 필요가 있음

<표 3> 2100년 재정목표에 따른 필요보험료율

		재정목표			
		적립배율2배	적립배율5배	수지적자미발생	일정한적립배율유지
국민연금보험료율	소득대체율 40%	12.91%	13.48%	14.11%	15.85%
	소득대체율 50%			16.69%	18.85%

4. 운용 수익율 관리

- 자금운영 전문가들이 관리하지만, 기대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관리

운용성과 개요

(단위 : 조원, 2018. 7월 말 기준)

308.6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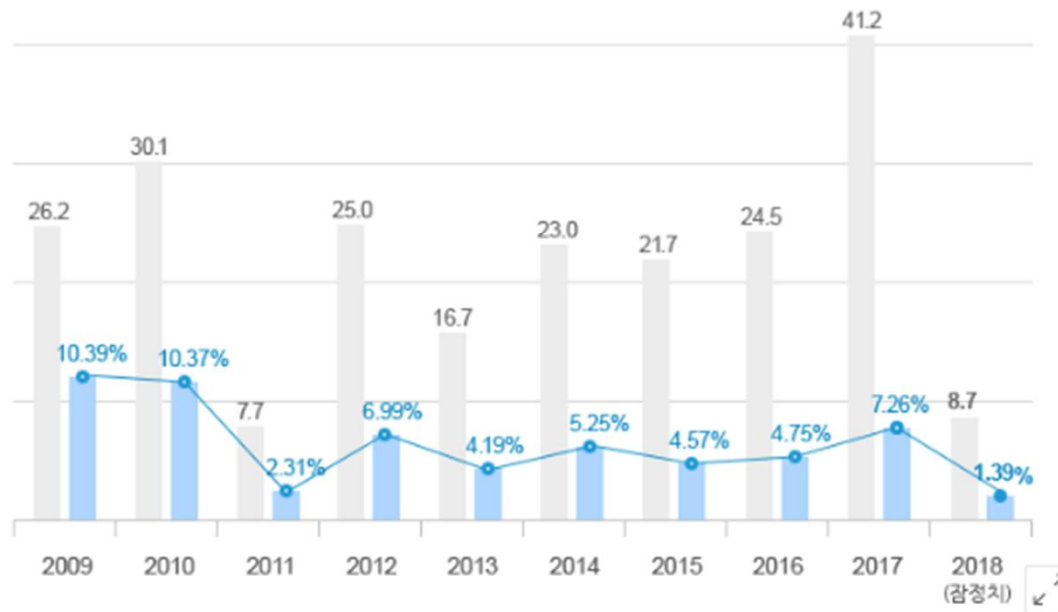
1988년 ~ 2018년 현재

누적수익금

5.50%

1988년 ~ 2018년 현재

연평균 누적 수익률



2. 물가연동

- 물가 반영한 연금 지급- 실제 지급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,
통계청 물가상승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음

통계표명: 소비자물가총지수와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					
단위: %					
	1998	1999	2000	2001	2002
소비자물가상승률(%)	7.5	0.8	2.3	4.1	2.8
	2003	2004	2005	2006	2007
소비자물가상승률(%)	3.5	3.6	2.8	2.2	2.5
	2008	2009	2010	2011	2012
소비자물가상승률(%)	4.7	2.8	2.9	4.0	2.2
	2013	2014	2015	2016	2017
소비자물가상승률(%)	1.3	1.3	0.7	1.0	1.9 ^가

3. 약속된 내용의 변경 문제 해결

- 저부담, 고급여 → 고부담, 저급여

소득대체율 70% → 2028년 이후 40% 수준

연금개시 연령 60세 → 65세 통계청 물가상승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음

Q & A

Thanks !